

인권정보자료실
ES1.25

**2003년 기획르보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하월곡동 그 현장을 가다**

발행일: 2004년 1월 13일

발행인: 인권운동사랑방 기획사업반

인권
정보자료실
ES1.25

2003년 기획르보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하월곡동 그 현장을 가다

발행일: 2004년 1월 13일

발행인: 인권운동사랑방 기획사업반

목 차

1. 기획의도 및 목적 / 4

2. 조사과정 / 6

3. <인권하루소식> 연재기사

하월곡동 이야기 ① 주거권 - 재개발에 내몰리는 삶의 터전 / 8

<해설> 주거빈곤자의 주거권 확보에 우선권을 / 11

하월곡동 이야기 ② 건강권 - 가난과 병마를 한 몸에 / 13

<해설> 건강할 권리, 가난해도 치료받을 수 있어야 / 17

하월곡동 이야기 ③ 노동의 권리 - 죽도록 일해도 가난만 물려줄 뿐... / 20

<해설> 저임금에 목숨걸어야 하는 건설일용노동자 / 23

하월곡동 이야기 ④ 사회보장권 - 최저생계에도 못 미치는 빈곤 / 25

<해설>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 시급 / 28

하월곡동 이야기 ⑤ 교육권 -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방치된 아이들 / 30

4. 기획좌담 - 하월곡동 이야기 취재후기 / 33

5. 조사활동을 마무리하며... / 41

[참고자료]

1. 성북구 하월곡동 상황 개괄 / 43

2. 지역조사 기법 / 45

[후기] 긴 빈곤의 터널 그 끝은 어디에 / 53

[일러두기]

1. 이 자료집에 실린 자료는 출처를 밝힌 후 자유롭게 가공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인권하루소식>에 실린 기사들은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 외 글들은 자료집 제작을 목적으로 새롭게 작성된 글임을 밝힙니다.

1. 기획의도 및 목적

김명수 · 최은아

21세기 대한민국, 자본주의가 화려하게 불을 밝히 풍요를 가장하고 있지만, 빈곤과 인권의 박탈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이 엄연히 존재한다. 이들은 사회권의 각 영역인 건강/주거/교육/노동/사회보장의 권리들을 동시에 박탈당해 인간다운 삶을 지속하기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고, 빈곤은 항상 이들과 함께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의 삶이 이 사회에 드러나거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론조차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사회권 영역에서 가장 인권침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분야 중 하나는 '빈곤'이다. 빈곤이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인권운동이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권으로서의 접근 방식은 별로 없었다. 특히 지표로 나타나는 통계 외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자료는 거의 없다. 빈곤으로 인해 야기되는 인권침해를 보여주는 작업이 전무하다. 따라서 빈곤지역의 인권실태조사는 인권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라는 판단하에 우선 우리는 특정한 빈곤지역을 모델로 하여 그곳의 사회권 박탈 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권을 구성하고 있는 건강/주거/교육/노동/사회보장 등 각 권리별로 주민들이 처한 상황을 조사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빈곤'과 '사회권 박탈'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관찰하였다. 즉 빈곤이 어떻게 '사회권의 박탈'을 야기하고, 거꾸로 '사회권의 박탈'이 어떤 방식을 통해 '빈곤'

을 만들어 가는지 조사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빈곤 극복을 위해 국가가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을 것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행의무에 대한 요구를 담아내려고 하였으며 인권운동이 복부할 수 있는 지점을 전망하려고 하였다.

목적:

- ① 빈곤지역 주민의 개별 권리의 구체적 박탈 상황을 조사하고 박탈원인을 구조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빈곤이 사회권의 어떤 권리의 박탈로 이어지는지 실제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보여준다.
- ② 조사의 전 과정을 통해 사회권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천하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주민들과 만나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하나 하나가 인권운동이며, 이를 통해 얻어진 자료들을 기록으로 자료화한다.
- ③ 인권운동과 지역운동이 사회권이라는 매개를 통해 만나가면서 연대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2. 조사 과정

김명수 · 최은아

- 빈곤과 사회권박탈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흩어져서 분포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우리의 역량을 고려하여 이들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이른바, 빈곤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실태파악을하기로 결정하였다. 소위 빈곤지역으로 분류되는 재개발 예정지인 성북구 하월곡동 산2번지인대를 조사하였다.

- 지역조사는 2002년 11월-12월 2개월에 걸쳐서 진행되었고 조사팀은 인권운동사랑방 내 기획사업반 상임·자원활동가 약 7명으로 구성되었다.

- 조사방법은 지역을 방문하여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처한 권리영역별 상황과 그들의 인식상태, 요구상황을 듣고 눈으로 관찰하는 밀착취재를 하였다. 성북 평화의 집 사랑방을 거점으로 하고 가게나 식당을 운영하는 주민들의 소개를 통해 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다. 약 10여 차례 방문하여 20명 정도 주민을 만났다. 각 권리영역들을 분류해서 그러한 상황에 더 부합하는 주민들을 만나고 침해된 권리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가령, 노동권이라면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여성노동자 건설현장노동자를 접촉했고, 주거권의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에 사는 세대와 재개발로 인해서 쫓겨나게 될 가정을 만나는 식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정한 하나의 권리만 박탈된 상황이 아니라 사회권 전반이 복합적으로 박탈된 상황

이었기 때문에 한 가구만을 만나더라도 여러 영역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경우 문헌을 참고하거나 해당 동사무소를 방문하였다. 사회복지사와 인터뷰를 하고 일반노조 활동가를 만나 도움을 받았다. 주거권의 경우 도시연구소 건강권의 경우 건강인대 등 부문운동단체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 또한 지역에 살고 있는 성북평화의 집 사랑방 아네스 수녀님, 밤꽃아이네 공부방 김숙경 수녀님, 인터뷰에 함께 해주신 지역주민들의 도움이 컸다.

- 하월곡동 지역주민들과 조사를 끝낸 이후 결과물은 인권하루소식에 <기획르뽀> 인간답게 살 권리-하월곡동 이야기'란 제하로 5회 기사를 제공하였다. 주거, 건강, 노동, 사회보장, 교육 등 5회에 걸쳐 르뽀 기사를 작성하였으며 각각에 해설을 덧붙였다. 해설에는 각 권리별로 제도적인 현황을 분석하는 것과 각각의 권리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정리하였다. '기획좌담 - 하월곡동 이야기 취재후기'에는 르뽀에 담기지 못한 사연이나 인권운동의 전체 조망 속에서 빈곤극복 운동을 어떤 식으로 펼쳐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담겨있다. 기획좌담은 인권하루소식에 미처 실리지 못했던 부분까지 모두 수록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활동을 마무리하며...'에서는 조사 후 참가자들이 함께 토론하여 도출된 결론을 실었다.

3. 인권 하루소식 연재 기사

<기획르보> 하월곡동 이야기 ① 주거권 재개발에 내몰리는 삶의 터전

박유민

"그저 죽지 못해서 사는 거지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산 2번지 김태환(무직, 70) 할아버지의 집을 처음 들어갔을 때의 느낌은 이렇게 비좁고 열악한 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냉장고와 작은 찬장, 그리고 한사람이 누울 수 있는 요가 차지하는 공간을 빼고 나면 남은 공간이 거의 없다. 공책 크기 만한 창으로는 한낮에도 벌이 들지 않아 불을 켜지 않으면 어두 침침하다. 김태환 할아버지를 비롯하여 산 2번지의 주민들은 대부분 공동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다. 집안에 화장실이 없는 가구가 대부분이었고, 그나마 있는 집도 고장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공동화장실을 쓰는 실정이다. 이렇듯 산 2번지 주민들의 대부분은 화장실, 부엌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단칸방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또한 가옥자체가 낡고 위험한 경우도 눈에 띈다. 김예덕(무직, 79) 할머니의 집은 지붕에서 물이 새고 있다. 이 때문에 천장이며 벽면까지 곰팡이가 썩었으며, 천장 지붕이 약간 내려앉았다. 또 문이 틀어져서 맞지 않아 바람이 사정없이 들어온다. 이 때문에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집안 전체는 쌀렁하기만 하다. 난방비가 부담스러워 심하게 추운 날씨가 아니면 보일러를 켜지 않는다는 할머니는 "따스게 자면 난방비는 어떻게 대느냐"고 하신다.

하월곡동 산 2번지와 맞닿아 있는 77번지는 이미 재개발이 확정되었으며, 산 2번지의 경우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다.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걸 대부분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후 대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주민들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돈 맞춰서 싼 데로 가야지요"라는 막연한 대답을 한숨 섞어 할 뿐이다.

얼마 안되는 이주비를 받고 주민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곧 철거가 공시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집 값을 현실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산 2번지로 이주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산 2번지 8통에서 오래 살았다는 통장 아저씨는 "77번지의 재개발로 산 2번지로 이사온 사람이 많다"라고 했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 입주요건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그나마도 일정 정도의 돈이 있어야 입주할 수 있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를 통하여 일정 정도 이주 희망자를 수용하여야 하지만, 현재 민간건설회사가 초기단계부터 개입하는 이러한 사업은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우선시하고 있다.

실례로 현재 재개발중인 인근 하월곡 4동의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총 1,610세대 중 단지 288세대만이 임대 아파트로 건설되고 있으며, 그나마도 전용면적이 고작 9평이어서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입

<해설> 주거빈곤자의 주거권 확보에 우선을

정보근

주를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77번지에서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아 들어가려 했던 한 주민의 경우 식구가 다섯이라 13평에 방 두 칸짜 리로는 살기가 힘들어서 대신 이주비를 받고 그 돈으로 집을 구할 수 있는 산 2번지로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금 소원은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거야"라며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고는 싶었으나,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한다.

곽길자(무직, 32)씨의 경우에는 하월곡 4동에서 이주비를 받고 산 2번지로 이사를 와서 살고 있다. 여섯 식구가 모두 함께 다리를 짊어지고 누워 있을 만한 충분한 공간은 아니지만, 보증금도 없이 매달 10만원 방세를 내고 있는 형편에 재개발이 된다면 이주대책이 전혀 없다고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고정적이지 않은 남편의 노동을 통해 여섯 식구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형편으로 천만 원이 넘는 임대아파트 입주비를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다. 또 고등학생인 아들과 함께 사는 김민생(무직, 44)씨의 유일한 이주대책은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얻어 나가게 되면, 자신도 숙식이 해결되는 직장을 얻어 사는 것이다. 이산가족이 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행 재개발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방식은 실질적으로 비용부담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이웃들을 무책임하게 내몰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주거의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주어야 하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다. 그러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미명 하에 오히려 삶의 터전을 빼앗고 더 어려운 환경으로 내모는 일이 지금도 하월곡동에서 자행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2003년 1월7일 제2249호

2000년 9월 건설교통부는 '4인 가구 최저면적 11.2평, 전용 부엌 및 화장실 확보, 적절한 환기, 채광 및 냉난방 설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최저주거기준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2002년 하월곡동 산2번지, 77번지에서 엇본 달동네의 주거환경실태는 이러한 최저주거기준이 과연 정책지침으로서 주거정책에 반영되어왔는지 의심을 품게 한다.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달동네 사람들에게 재개발은 그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박탈하는 것이었다.

철거지역 세입자에게 공급되는 1,500만원 보증금의 임대아파트는 가난한 달동네 세입자들에게 너무 비싸 대안적 주거가 되지 못했다. 그들은 잠정적 재개발 후보지로 옮겨 다녀야 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은 93년 이후 더 이상 짓지 않고 있다. 필요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다. 공식 대기자만 3만5천여 명에 이르고, 서울지역의 경우 지구에 따라 2-3년은 기다려야 입주가 가능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란 최저생계를 겨우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수급권자에서 탈락한 기존 입주자를 내쫓는 것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또 다시 주거빈곤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권리'는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아래 사회권규약)을 비롯한 여러

국제인권규약들에서 보편적 인권으로 인정된 지 오래다. 특히 한국 정부가 가입한 사회권규약은 주거빈곤자의 주거권 확보에 우선성을 둔 주거정책을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주거빈곤자에게 대안적 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당연한 의무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거권 운동진영은 1998년 말부터 주거권을 인권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최저주거기준, 주거환경개선, 임차인과 철거민보호' 등을 규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거기본법' 제정을 주장해왔다.

보편적 인권은 일정한 국가의무를 발생시킨다. 최저주거기준의 현실화에 목표를 둔 △공공임대주택의 확충 △부담능력에 따른 주택가격 차등 적용 △주거비 보조제도 시행 등의 조치는 국가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다.

<인권하루소식> 2003년 1월7일 제2249호

<기획르보> 하월곡동 이야기 ② 건강권 가난과 병마를 한 몸에

김명수

취재활동을 한 지 며칠 되지 않아 하월곡동 산2번지는 건강을 잃은 사람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은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가난하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가 상대적으로 힘들고, 건강을 잃게 되면 가난해지기 쉽다는 현실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일까.

김민생(44) 씨는 5년 전 발생한 중풍으로 인해 신체의 왼쪽부분에 마비증세가 있다. 지금은 재법 호전돼서 따뜻한 계절에는 조금씩 일을 하지만, 꼬박 4년 동안 아무 일도 못했다. 그 사이 돈도 못 벌고, 치료비를 지출하느라 점점 생활은 조여들었다. 그러던 중 2년 전 기초생활보호 수급자가 되었다. 요즘도 기온이 내려가 혈액순환이 잘 안되는 늦가을부터 초봄까지는 아무 일도 못하고 방안에만 머문다.

아프면 참을 수 밖에 ... 공공의료기관은 멀기만 하고

김 씨의 집에는 화장실이 없다. 그래서 김 씨는 추운 겨울날 밤 50미터쯤 떨어진 공동화장실까지 가는 길이 두렵기만 하다. 왜냐하면 추운 날씨에 조금만 노출되어도 고혈압 때문에 쓰러지게 되고, 방치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의료급여 2종이기 때문에 단지 건강보험료만 안낼 뿐,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다. 때문에 기초생활보호법에 따른 생계보호비 45만원에서 약 20%를 차지하는 5-10만원의 약값을 지불하고 나면 생활은 쪼들리기만 한다.

한 달에 한번씩 보건소에서 혈압을 재고 처방을 받아야 하지만 성북구에 하나씩 있는 보건소와 보건 분소의 위치가 멀리 있어서 추운 날씨에 외출하기 힘든 김 씨는 몇 달째 보건소에 가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적으로 골고루 자리잡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태환(70) 씨 역시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지만 의료급여 1종이라서 병원에 갈 때 구청에서 제공하는 가정도우미의 도움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한 명의 가정도우미가 7개 동을 담당하고 있어 제 때 병원에 가기란 어렵다. 몸이 불편해서 병원을 다니기 힘든 환자들에게는 직접 찾아가서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방문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혼자 몸을 추스를 수 없는 김 씨는 요양원에 들어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협받기 때문이다. 허리디스크와 말초동맥증, 고혈압, 당뇨, 건해 등으로 인해 누워있는 것 말고는 할 수가 없는 김 씨는 식사를 준비하지 못해 3일을 굶은 적도 있다. 결국 작년에는 영양실조 판정까지 받았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인 김 씨는 민간요양원의 높은 비용에 엄두를 못내고 있다. 공공요양원은 공급이 부족해서 신청을 하고 최소한 6개월을 기다려야 할 실정이다.

김예덕(79) 할머니는 혼자 사는 독거노인으로 가끔 종이상자를 주우러 다니는데, 무릎 관절염이 있어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다. 물리치료가 필요하지만 "이런데 아프다고 죽는 거 아니니까 병원에 안가"라고 고개를 젓는다. 오랜 세월동안 '아프면 참는 수밖에 없다'는 치료 아닌 치료방법에 익숙해진 것이다.

하월곡동 산2번지에는 알콜 중독 환자들이 특히 많았다. 알콜 중독은 가난과 실업, 질병으로 인한 절망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또한 찾아드는 건강악화와 가정불화는 가족해체로 이어진다고 한다. 알콜 중독에 걸린 후 간경화로 입원한 경험이 있는 50대 남자는 아내와 자녀들과 모두 헤어져 80대 노모와 단 둘이 살아가고 있었다. 생계능력이 없는 50대 아들이 80대 노모의 날뎀팔이에 기대 살아가는 모습은 처연함 그 자체였다.

장애수당 받으려면 돈 내고 장애진단검사부터 받아야

홍광현(12)군은 정신지체장애로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장애1·2급에 지급되는 장애수당을 못 받고 있었다. 장애등록을 하려면 장애진단서를 병원에서 발부 받아야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인 광현 군 가족은 '큰 돈 들 걱정'과 이후 불어날 진료비 걱정에 장애진단조차 엄두를 못 낸 것이다. 주변의 설득 끝에 광현 군은 장애를 안고 태어나자마자 받았어야 했을 진단을 12년이 지난 후에야 받을 수 있었다. 장애진단 검사비는 20여만원이 나왔고, 독지가의 도움으로야 지불할 수 있었다. 장애수당이라는 복지에 접근하기에도 가시밭길이 놓여 있는 것이다.

건강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람은 노동을 포함해 어떠한 활동도 하기 힘들다. 건강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월곡의 많은 사람들은 가난과 병마에 맞서 싸우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2003년 1월 8일 제2250호

<해설> 건강할 권리, 가난해도 치료받을 수 있어야

김명수

하월곡동 산2번지에서 보듯이, 빈곤과 건강박탈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빈곤이 건강박탈의 주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질병과 장애가 빈곤을 초래하기도 한다.

가난으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영양부족, 무리한 노동이 건강의 상실로 이어지는 한편, 건강의 박탈이 노동력 상실과 소득부채를 유발하고, 더불어 무리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서 결국 빈곤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빈곤이 건강수준의 저하를 낳고, 낮은 건강수준은 노동시장에서의 배제를 통해 다시 빈곤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맺고 있다.

정부는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라고 떠들어대지만, 실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장치가 충분한지는 의심스럽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1년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보험혜택이 중단된 가구는 185만9266가구에 이르렀다. 이것은 전체지역 가입자의 22%에 해당하는 수치다.

건강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체납자의 78.3%가 소득이 부족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고, 14.7%가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들 중에는 최저 생계비의 100-120%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차상위계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절대 빈곤 상태에 빠질 위험을 항상 안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세대는 2종, 그 외에는 1종으로 구분한다. 2종의 경우 보험료만 면제될 뿐,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똑같다. 의료급여 2종인 수급자와 1종인 수급자의 실제 소득수준은 모두 최저생계로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이 훨씬 큰 것이다. 게다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체불함으로써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이 입원거부와 퇴원중용 등의 형태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일반적이고 필수적인 진료수단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이 안되는 비급여항목이 많고, 본인부담금이 높아서 의료서비스의 경제적 접근을 심각하게 제약한다.

이것은 국민전체에도 그렇지만, 특히 빈곤층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다. 장기적으로 국가는 의료의 전면적인 공공화를 이루어야 하겠지만, 지금 당장 고통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빈곤층이 돈이 없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차별 받는 경우는 없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보험 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본인부담금의 비율을 대폭 하락시켜서 가난한 사람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일정 한계를 넘어서는 의료비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고액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실시하여 의료비로 인해서 가계가 파산하는 것을 예방하고, 소득수준에 비례한 누진적 보험료 부과체계를 확립하여 가난한 이들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줄일 것을 요구해왔다.

또한 단계적으로는 의료부조제도의 도입으로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확보할 것을 주장해왔다. 의료부조제이란 기초생활보장의 여러 급여 중 생계급여, 자활, 주거급여 등을 제외하고 의료급여만을 특정집단에게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더불어 정부는 공공보건 의료 강화하여 의료서비스의 경제적·지리적 접근성을 개선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방문보건과 장기요양 서비스는 빈곤층에서 광범위한 필요가 존재한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사회권규약은 "국가는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의료서비스는 반드시 모든 사람이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공중에 떠있는 선언을 사람들의 삶 속으로 끌어내려야 할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2003년 1월 8일 제2250호

<기획르보> 하월곡동 이야기 ③ 노동의 권리 죽도록 일해도 가난만 물려줄 뿐...

박세진

하월곡동 산2번지. 주민들의 삶은 궁색하고 비참하지만, 나름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 사람들은 일하고 또 일한다.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한 매일 매일의 노동이 결코 수월하지는 않지만...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딸을 둔 술이 엄마는 얼마 전까지 하월곡동의 한 영세 봉제공장에서 일했다. 결혼 전 한복재단 기술을 익혔던 그는 다행히 한 달에 100만원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었지만,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하루 10시간씩 먼지 자욱한 공장에서 일하고도 고작 50만원 남짓을 월급으로 받는다고 한다. 주말 근무나 야근도 예삿일이지만 그렇다고 버는 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수당만 준다면 늦은 시간까지라도 힘든 줄 모르고 일할 수 있지만, 많은 공장들이 야근수당 없이 자정 가까운 시간까지 일을 시킨다"고 술이 엄마는 말한다.

"잡부는 산재보상도 없어"

술이 아빠는 하월곡동의 몸 성한 남자들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건설현장을 일터로 삼는다. 원래는 세공기술자였지만 12시간씩 맞교대로 일해야 하는 열악한 작업환경을 피해 몇 년 전부터 '그나마 나온

' 건설노동을 하게 됐다. 하지만 건설일용노동자로서의 삶 역시 고되긴 매일반이다. 휴일이나 월차휴가는 언감생심. 일감이 주어지는 한 열심히 일해 보지만, 아무리 건물을 올리고 또 올려봐도 술이 아빠 자신의 집은 아직 어디에도 없다.

술이 아빠에게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산업재해다. 대부분의 회사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산재를 당한 경우에도 기술자가 아닌 잡부의 경우는 어영부영 넘어가는 때가 많다. "회사는 산재처리를 거의 해주지 않는데, 산재 사건이 있으면 공사를 하청 받을 때 그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보통 한 달에 한두 명은 꼭 다치지만, 잡부의 경우는 다쳐도 약간의 병원비만 보상받는다." 또 다른 건설노동자 장춘기(37) 씨의 말이다.

이섯 식구, 한달 60만원으로 버티

홍규해(37)씨네 여섯 식구는 요즈음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0만원으로 한 달을 버티낸다. 왜냐하면 홍 씨가 2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 건물 방수작업의 특성상 날씨가 추워지면 일감이 북뚝 끊어지기 때문이다. 그는 할 수만 있다면 기술을 배워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싶지만 "배운 게 짧고 나이가 많아서 시켜주지 않을 것"이라고 지레 자신 없어 한다.

홍 씨의 우려는 현실적이다. 한 사회복지사는 "직업훈련을 받는 것 자체가 어렵고, 설사 훈련을 마친다 하더라도 질이 낮은 노동력이라고 회사에서 기피할 것이 뻔하다"고 말한다.

노동권의 박탈과 절대적 빈곤은 어깨를 걸고 대를 이어 찾아든다. 전라도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채 서울에 온 김(37) 씨. "탁치는 대로 일하면서" 밑바닥 인생을 전전한 그는 여러 차례 안정된 직장을 찾기 위해 애를 써봤지만 무학에, 변변한 기술도 없는 터라 매번 실패하기 일쑤였다.

그는 5년 전 뜻하지 않은 병을 얻어 자리에 누웠고, 웬만큼 거동이 가능해진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기초생활보장비 45만원으로 단촐히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 돈으로 월세, 난방비, 세금, 약값 등을 내고 나면 담배 한 갑 사기도 어렵다"고 한다. 그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은 아들이다. 아들만큼은 고등학교라도 졸업해 자신의 전진을 밟지 않기를 바라지만, 벌써 몇 달째 학교에 나가질 않는다는 아들의 미래도 밝아 보이지만은 않는다.

"모든 사람은 노동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지닌다"라고 세계인권선언은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 말은 하월곡동 산2번지의 현실과 충돌하면서 공허한 메아리로 남는다. 가난의 대물림 속에서, 빈곤의 악순환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는 산2번지 주민들에게 '노동의 권리' 운운하는 말은 그저 사치일 뿐이다.

<인권하루소식> 2003년 1월 11일 제2253호

<해설> 저임금에 목숨걸어야 하는 건설일용노동자

박세진

가난한 이들이 으레 그리하듯 산2번지의 주민들, 대부분도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다. 이 중 많은 사람들이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이다.

현재 전체 기술직 건설노동자의 90% 가량은 임시고용 상태에 놓여 있다. 한국의 건설업체는 최소한의 핵심기능인력조차 보유하지 않은 채 기능인력의 거의 전부를 외부에 의존하는 극단적인 하도급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은 회사측에는 노무관리 비용 절감을 통한 이윤극대화라는 이점을 주지만 건설노동자들에게는 항상적인 고용불안이라는 문제를 안겨준다.

불안정한 고용구조는 임금, 복지, 사회보호 등 여러 측면에 걸친 문제로 이어진다. 일례로 건설일용노동자는 그리 적지 않은 일당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업 노동자에 비해 평균 임금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고용불안으로 인해 한 달 평균 근무일수가 19일 정도에 불과한데다 다른 분야의 노동자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유급휴일이나 상여금이 거의 없다.

건설노동자에게는 산업안전의 문제도 심각하다. 전체 산재 사망사고 가운데 건설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에 달하고 있으며, 미숙련·반숙련 노동자들은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법이 없어서 열악한 근로조건이 지속되고 건설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것은 아니다. 더욱 큰 문제는 당국의 의지 부족이다.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가 있어도 관계당국은 안전관리비가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 혹 안전관리비가 하도급과정의 거래 속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조사하지 않는다. 법의 준수를 감독해야 할 노동부와 각종 위법 사항을 처벌해야 할 법원 및 노동위원회의 업무 방기 속에서 건설인용노동자들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당국의 지도·감독 강화와 노동조합의 교섭권 인정 등 노조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궁극적으로 건설업의 비정상적인 하도급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고질적인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동시에 제반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2003년 1월 11일 제2253호

<기획르보> 하월곡동 이야기 ④ 사회보장권 최저생계에도 못 미치는 빈곤

허혜영

지난해 12월 하월곡동 산2번지 언덕 꼭대기 구멍가게에서 만난 통장 부부는 자신들이 사는 얘기를 들려주는 대신,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골목으로 나섰다. 그들이 발걸음을 멈춘 집 앞에서 누구보다 힘들게 달동네의 겨울을 나고 있는 한 가족을 만났다. 최저생계를 이어가기조차 어려운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빈곤은 곧 생존권의 박탈이었다.

어느새 광길자 씨 집 앞에 통장부부와 동네 할아버지, 세 살 박이 막내딸을 안은 광 씨가 좁은 골목을 짝 매운 채 둘러섰다. 그들이 쏟아내는 말에서 광 씨네 여섯 식구의 힘겨운 겨우살이를 짐작한다. 광 씨는 "몇 년 전에 30만원씩 지급되던 생계급여가 9만8천 원으로 깎이고 나서 더 힘들어졌다"면서 "겨울이라 남편은 일을 못하는 날이 더 많은데"라고 속상한 마음을 토로한다.

광 씨네 사정을 잘 안다는 동네 할아버지는 "이 집 애 아빠가 일 나가는 날은 한 달에 보름도 못 된다.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은 많아 야 70만원이고 적으면 50만원도 안 되는데, 생계보조금을 10만원 정도밖에 안 주면 60-80만원으로 여섯 식구가 어떻게 살라는 말이나"며 여섯 식구의 고된 삶을 전하려 애쓴다.

곽 씨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이다. 수급권을 가진 모든 사람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곽 씨 식구가 한 달을 나는 60-80만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3년 6인 가구 최저생계비 130여 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돈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곽 씨는 6인 가구 최저생계비 130여 만원에서 교육비, 의료비 등으로 공제되는 15만원 정도와 노동에 의한 가구소득 50-70여 만원을 빼고, 나머지 45-65만원 정도를 지급받아야 했지만, 곽 씨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고작 10만원도 안 되는 것이다.

권리 되찾는 방법도 몰라

문제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사가 책정한 곽 씨 남편의 일일근로소득에 있었다. 동사무소 기록에 책정된 그의 일일근로소득은 100만원이 넘었다. 방수공사를 주로 하는 건설일용노동자로서 겨울에는 채 보름도 일하지 못하는 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과도하게 책정된 일일근로소득에 대해, 이 지역 사회복지사는 "일하는 사실이 확인된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일일근로소득을 책정하는데, 주로 노동사무소나 직업소개소를 통해 파악된 비숙련 노동자의 일당 수준에 기초한다"라면서 "그들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며칠을 일하고 얼마를 받는지 확인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실질 근로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는 또 "사회복지사 한 사람이 담당하는 가구가 터무니없이 많은 현실이 이런 문제를 낳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그는 몇 달 전 철거로 많은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기 전까지 무려 350가

구를 담당해 왔다.

이처럼 불합리한 행정조치에 의해 최저생계를 보장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경우, 해당사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길은 있다. 그러나 곽 씨를 비롯해 상당수의 수급대상자들은 박탈된 권리를 구제 받는 방법조차 모르고 있다.

<인권하루소식>1월 15일 제2255호

<해설>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 시급

정보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액 설정의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최저생계비다. 그러나 최저생계비 산정기준 자체가 불합리해, 대부분의 수급권자들은 최저생계 유지에 턱없이 모자란 급여를 지급받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현행 최저생계비 산정은 중소도시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물가나 주거비가 높은 대도시 지역의 빈곤층은 수급권자에서 제외되거나 사실상 최저생계 유지가 불가능한 급여를 받고 있다.

장애, 아동, 노인이 있는 가정의 경우는 추가지출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도 생계급여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1급 장애인의 한달 추가지출은 20만원이지만 장애수당은 7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수급자 선정기준의 부당성, 수급대상자의 누락은 일선의 전담공무원들도 지적하고 있는 문제다.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평가단'의 조사에 의하면, 수급신청 탈락가구의 77.3%가 소득면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였으며, 이중 23.9%가 최저생계비의 절반미만의 소득인 것으로 판명됐다. 특히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탈락한 경우가 45.3%에 달한다.

부양의무자에게 소득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만 일부 있다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손자녀, 증손자도 부양의무자로 보는 것은 이러한 기준의 비현실성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 기피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선정하고, 추후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비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자식들에게 해를 끼칠까봐 수급권을 포기하는 노인들도 다수 존재한다.

결국, 최저생계비의 현실화와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완화 등을 비롯한 사회보장체계의 전반적인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인권하루소식>1월 15일 제2255호

<기획르보> 하월곡동 이야기 ⑤ 교육권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방치된 아이들

'배우지 못해서...', '학력이 짧아서...' 하월곡동 산2번지의 두 아버지가 한숨쉬며 뱀은 말이다. 달동네로 밀려와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의 처지가 모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탓'이란단. 지금 하는 노동으로는 가족들과 최저생계조차 유지하기 힘들지만, '배운 게 없어서' 좀 더 조건이 좋은 일자리를 구할 희망은 일찌감치 버렸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자식들 앞에 놓인 미래가 자신과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이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자식의 학력을 결정하고, 학력이 경제·사회적 지위를 만드는 현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들이었다.

공교육 따라가기도 벅찬 아이들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득세하는 지금, 가난한 부모들의 불안대로 교육의 기회는 결코 공평하지 않다.

하월곡동에서 8년째 '밤골아이네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숙경 수녀는 "대부분의 산동네 부모들은 보통 10만원이 넘는 학원에 아이들을 보낼 수 없는데, 지금의 교육현실에선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학교공부를 따라갈 수조차 없다"고 말한다. 달동네 아이들이 사교육

뿐 아니라 공교육으로부터도 소외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는 또 "지금은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이 같은 학교를 다녀 문제가 덜 하지만, 재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사교육에 의한 교육수준의 격차는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걱정한다. 이런 상황에서 "공부방은 빈곤가정의 아이들이 학교수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공간"이라는 것이 그녀의 설명이다.

모든 것은 공부방에 맡겨지고

빈곤지역에서 공부방이 하는 역할은 단순한 학습보조뿐이 아니다. 빈곤지역 아동들이 스스로를 자유롭게 표현하며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은 단지 '학교공부'만은 아니다.

이숙경 수녀는 "빈곤이 낳는 가정해체, 가정분화 속에서 아이들이 방임·결식·학대·일탈·따돌림 등에 노출되고, 학교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한다. 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공간은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밥을 해결하고, 상실한 사회성과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곳이다. 이제까지 국가는 그러한 역할을 민간 공부방에 떠넘겨왔다.

"공부방 법적 지원 절실"

빈곤 지역 아동을 위한 교육·문화공간을 제공해 왔음에도, 정작

공부방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제도는 없다. 결국 무허가 시설일 수밖에 없는 공부방들은 언제나 운영비 부족에 시달린다.

이러한 상황은 하월곡동 산2번지 아이들이 다니는 '밤골아이네 공부방'도 마찬가지다. 몇 평 안 되는 공간에 98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지원하지만 좁은 공간과 교사 부족으로 다 받을 수가 없어, 형편이 더 어려운 가정 순서로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숙경 수녀는 "지역특성상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이들도 많지만 운영비 부족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부방의 심각한 재정난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부방을 인가하는 법적 토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난 해 12월, 산2번지 꼭대기의 한 구석진 방에서 만난 고등학생 김모 군은 오래 전부터 학교에 나가지 않고 있었다. 아버지와 난 풀이 살고 있는 단칸방을 찾았던 세 번 모두, 그는 낮에도 킁킁한 방에서 계속 잠만 자고 있었다. 어머니의 가출, 아버지의 병과 실업, 그리고 가난 속에서 그는 학교와 사회로부터 점점 고립되고 있었다. 하지만, 김 군은 그 상태로 계속 방치될 뿐이었다.

<인권하루소식> 1월 22일 제2260호

4. <기획좌담> 하월곡동 이야기 취재후기

최은아

하월곡동 연재 기사를 끝내고 지난 2달간 이어진 취재 후속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취재소감, 지면상 소개되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 빈곤에 대한 인권운동의 과제 등을 중심으로 좌담한 내용을 요약해서 실는다.

취재소감

"골목에서 무작정 인터뷰를 시도했는데 '얘기할 힘조차 없다'라는 할머니의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아요" 하월곡동 취재 기획부터 3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취재기자들의 뇌리 속에는 만났던 주민들의 모습이 선하다.

세진 : 문제의 사슬이 꼬여있으니 어디서부터 풀어야할지 답이 나오지 않아요.

유민 : 돈 때문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제약 당하는 현실이 씁쓸합니다.

보근 :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사회권운동을 하는 것이 배부른 소리 같았으나 하월곡동 취재를 하면서 여기서부터 사회권운동이 출발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명수 : 사람들이 일을 안해서, 개인이 부족해서, 노력하지 않아서 저렇게 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이 시스템에서 개인이

똑똑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소개되지 못한 사연들

하월곡동 이야기에서 지면상 실리지 못한 몇 가지 사연을 좌담을 통해 들어보았다.

명수 : 김 할아버지 옆집에 사시는 할머니에게 50대 아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연로하셔서 당신 몸을 가누는 것도 힘든데, 아들이 장독대에서 떨어져 전신이 마비되었습니다. 방에만 누워있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계속 누워 있으니까 욕창에 걸리는데도 적당한 치료를 못 받고 있죠. 한 때 자살을 시도하려 했으나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 적극적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혜영 : 보건소에서 한 달에 한번 씩 오는 데 회충약이랑 소화제 등을 놓고 간다고 해요. 정작 필요한 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죠. 앞으로 철거가 시작되면 이사를 해야 하는데 아들이 아프기 때문에 아무데서도 이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세진 : 광진이네 집 취재를 가면 골목 입구에서 동생 영희가 저희들을 마중 나와 손을 잡고 집을 보여주었습니다. 조그만 방... 많은 슬픔이 고였습시다.

혜영 : 광진이네 집은 연탄가스를 배출하는 기계가 고장나 연탄가스가 방안으로 가득 퍼집니다. 광진이네 집 골목에 들어섰을 때부터

연탄가스 냄새가 나는데 그 연탄가스가 가득 찬 방안에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무서웠습니다. 아이들에게 위험한 환경이 일상화된 셈이죠. 하루는 김밥집에 갔는데 영세공장의 노동자들이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안된다. 바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김밥집 아줌마가 '저사람들은 점심 15분 저녁 15분이야'라고 하더군요. 구두밧창을 몇 개 붙이느냐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기에 시간이 곧 돈이죠. 저임금이 사람을 기계처럼 만드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권리의 접근도

'권리 위에 잠 자는 자 권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경구가 있지만 하월곡동 사람들에게 권리란 무엇 남의 나라 얘기처럼 느껴졌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주민들은 몰랐다. 왜 그렇지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지 물었다.

유민 : 광진의 경우 장애수당을 받기 위해 검사비가 필요한데 검사비가 무려 11만원 정도 나왔어요. 누구한테 11만원은 하루 술값도 안되는 금액이지만 광진이에게는 큰 돈이죠. 절차의 복잡함과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이런 제도가 있는데 왜 너희들이 못 찾아 먹느냐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명수 : '자포자기' '해도 안 된다'는 의식이 문제죠. 하지만 이런 의식이 생기기까지 많은 시련과 벽에 부딪쳐 좌절했던 경험들이 쌓였을 겁니다.

세진 : 자기가 못 나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지, 국가에서 해줘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혜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에서 탈락하는 등 뭔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때, 우선 구청에 가서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어처구니없게도 구청 직원들조차 이 절차를 모릅니다. 그동안 요구해온 사람들도 없었다고 해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는데 이 절차 역시 거의 모릅니다. 일선 공무원들은 국가에서 도와주는 거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슨 권리가 있느냐고, 그래서 박탈당했을 때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는 대로 받아라'는 의식이 아식까지 있죠.

명수 : 사회권 영역의 법은 사람들의 삶에 별다른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법도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민 :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도 문제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너만 똑똑하고 의지가 있다면 장학금 받고 공부 잘 하면 지원해준다는 식이죠. 실제로 가보면 어느 누구를 데려다 놓아도 그렇지 못하는 환경이 많습니다. 네가 게을러서 가난하다는 사회적 의식구조 자체가 이 사회를 계층화시킵니다. 너희들하고 우리는 다르다,

너희는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위계층으로 떨어진 것이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이정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렇다면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

정작 하월곡동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은 정부, 인권운동가, 지역사회운동가, 사회복지사 등에게 빈곤문제에 대한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었다.

혜영 : 문제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걸여된 것이 있습니다. 가족, 애정 등등...

명수 : 하월곡동에 알콜중독자들이 많은데 이로 인해 가정폭력이 생기고 아내는 집을 나가죠. 또한 주거든 건강이든 물질적인 부족이 정신영역까지 옮겨 삶을 뒤흔드는 것 같아요.

유민 : 대부분 힘든 노동을 하는데 술로 잊을 수 밖에 없으므로 알콜중독을 무작정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보근 : 인간은 모두 사람답게 대우를 받고 싶은데 아무리 기술이 있다고 해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용직 노동자는 사회적으로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죠. 일상적으로 겪는 상실감과 좌절감이 클 것 같습니다.

혜영 : 자기 삶이 변화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의지도

없고 무기력하고 외로움, 고립감, 사회와의 단절감이 큼니다. 자활공동체 같은 곳이 마련되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개발이 되면서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디가면 일자리를 구한다든지 아이들이 공부방을 이용한다든지 등 지금은 낮은 수준이나마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데 재개발을 통해 그런 사회적 관계가 깨지는 거죠.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정보접근도가 낮습니다. 자기권리를 알아야 침해당했을 때 구제 받을 수 있는데 경제·시간적인 여건 때문에 절차에 접근할 수 없죠. 인터넷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인터넷의 접근으로부터 배제됩니다. 그들에게 정보를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등 그들에게 자기권리와 관련된 정보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빈곤해결의 열쇠는?

보근 : 예산이 문제입니다.

혜영 : 사회권 실현에 있어서 재정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가가 의지는 있으나 돈이 없다면 지금처럼 그 이상의 주장을 못해야 하나요? 사실 그런 것을 강제해 내야 합니다. 강제할 수 있으려면 재정이 무엇에 우선적으로 쓰이는지 충분히 알고 그것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운동의 영역에서 할 수 있고 사법영역에서도 가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필수적인 생존권 확보에 우선적인 재정투여가 필

요하고 국가의 의무로 강제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은아 : 만약 정말 한정된 재정 내에서 예산을 집행해야하는 경우라면 가장 인권을 침해받기 쉬운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에 중심을 둔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뤄져야하죠. 단지 돈이 없다는 것으로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혜영 : 돈이 없어서 지금처럼 참으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를 인권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은아 :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인프라는 그들의 몫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의 접근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계단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노인·임산부 등이 그 시설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연대성'이라는 가치는 어떤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보다는 공동체의 삶의 질을 같이 향상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혜영 : 권리를 침해받기 쉬운 사람들이 정치·사회적으로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당사자들이 스스로의 문제에 참여해서 해결해나가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인권운동과 지역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주민들이 자기의 구체적인 문제를 권리로 이해하고 해결해 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참여의 공간을 넓혀야 합니다.

좌담 후기

처음 인터뷰를 시작할 때 주민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다고 한다. 그 삶을 듣는 것 자체가 개입인데 과연 취재 이후 무책임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는 거다. 그러나 막상 주민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마음을 쉽게 열어주고, 자신들의 삶을 들려주며, 심지어 격려해주는 말을 했을 때, 닫혀 있었던 마음이 열렸다고 한다. “주민들은 인권운동 하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더라도 뭔가 간접적으로 일을 할거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를 지켜봐 주었습니다”

5. 조사활동을 마무리하며...

박유민

흔히들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월곡동 취재를 마치면서 비록 돈이 삶을 규정짓는데 전부는 아니지만, 전제조건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말미암아 절대적 빈곤은 해소되었다고들 자랑스럽게 말한다. 심지어 하월곡동 인근의 주민들마저 ‘아직도 연탄을 때는 집이 있어?’ 라고 반문할 정도였다. 그러나, 우리가 만난 하월곡동의 주민들이 정말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는 의문이 든다. 만약 우리가 그랬었던 것처럼 하월곡동을 다녀온다면 말이다.

주거, 건강, 사회보장, 노동, 교육. 이렇게 다섯 흐름으로 나누어 기사를 정리하면서 가장 난감해 했던 문제는 하나의 엄연한 현실을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정확하게 재단해서, 단 하나의 카테고리 규정해 놓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빈곤의 문제는 어느 한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인간의 모든 삶의 부분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화장실도 딸려 있지 않아 공동화장실을 사용해야 하고, 난방, 채광,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며, 학력이 짧고 기술이 없어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정

한 수입이 보장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려해도 치료비가 만만치 않아 웬만한 중병이 아니면 움직일 수가 없다. 결국 건강의 악화는 노동능력의 상실로 이어지고, 수입원이 보장되지 못하면 2세들의 교육에도 신경을 쓸 여력이 없어진다. 결국 이러한 빈곤은 자녀들에게도 대물림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각 영역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상호 연관을 가지고 서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물질적 빈곤은 사회적 삶에 대한 좌절감과 계층적 위화감을 불러일으키며 정신적인 파탄에까지 이르게 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실례로 술에 의존하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사회에 대한 많은 상실감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었다. 경제적 빈곤은 개별적 개인성원들의 정신 파탄을 가져오게 하고, 결국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물질적인 빈곤을 개인 혹은 한 가정의 사회적 가치기준으로 삼아왔다. 또한 가난한 삶을 영위해야만 하는 이들의 문제를 그들의 개인적인 노력의 결여와 돈벌이 능력의 부족 탓으로만 돌려왔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는 어느 한 부분만을 고쳐내면 쉽게 해결될 그런 간단한 성질의 것들이 아니다. 경제성장의 그늘에 가려진 편중된 부의 심화와 굶은 상처를 드러내 치유하지 않고 여태껏 달려온 이 땅의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의 결과인 것이다.

[참고자료] 1. 하월곡동 지역 개관

박유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위치한 하월곡동은 행정동인 월곡 1~4동으로 나뉘어져 있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함께 더불어 도심지 재개발에 의해 이주, 정착이 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하월곡 2동 산2번지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남아 750세대, 1천 5백여명의 주민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인근 상월곡동 및 하월곡동 지역 전체가 도심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특히 2002년 10월 1500여 가구 규모의 상월곡동 동아아파트 입주를 시작으로 재개발사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2006년까지 월곡동 일대는 6700여 가구의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신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하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가라는 근원적인 물음에는 회의가 들 수밖에 없다. 현 거주민을 위한 임대아파트의 물량도 적을뿐더러 터무니없이 적은 이주비로는 입주비 마련이 수월치 않기 때문이다. 가진 것 없는 이들의 보금자리를 대책 없이 내몰고 그 자리에 경제적 여력이 되는 사람들을 위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한다. 그래서 하월곡동이 투자 유망한 지역이라고 소개한 다음의 경제신문 기사는 더욱더 씩씩한 웃음만 짓게 만든다.

재개발사업 초기 단계여서 향후 추가 상승여력이 충분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월곡1구역은 99%가 국·공유지로 초기 투자비용이 적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시유지 불하대금 즉, 땅값은 20년 동안 장기 분할상환이 가능해 금융비용이 적게 들어갈 전망이다.

투자목적의 구입뎀 국민주택규모(전용 25.7평이하) 이하의 아파트가 90%를 차지해 24평형 지분이 적당하다는 분석이다. 대부분이 시유지인 월곡1구역의 지분 구입뎀 총 투자금액 대비 수익률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투자결정전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파이낸셜 뉴스 2002년 12월 11일>

[참고자료] 2. 지역조사기법

1. 배경- 교제상황

① 지역을 조사한다는 것은 조사 자체에 대한 의미만이 아니라 조사를 통하여 지역을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또한 지역문제를 파악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사항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 개선을 위한 정책에 활용 가능한 자료로 만들어 내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우리가 각기 활동하는 지역에서도 예를 들자면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한 주거, 복지, 문화, 교육, 환경 등의 조사를 수행해야할 기회가 자주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들이야말로 바로 그와 같은 지역조사의 방법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④ 아래에서는 간략하게 이를 위해 필요한 지역조사와 관련한 간략한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2. 지역조사의 진행

구체적인 지역조사의 기법을 익혀가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의 조사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가능한 대상 지역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어도 좋고 또한 심각한 지역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다.

지역조사의 첫 번째 의의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추측이나 가설을 실증하는 것이다. 즉, 어떤 가설을 통계 데이터나 기술 자료에 의해 입증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의의는, 구체적인 현실의 모습을 아는 것에 의해 지금까지의 확실치 않았던 문제나, 어떤 사실과 다른 사실과의 상호관계를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 조사에 의해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기도 하고, 혹은 그것을 분석하는 재미가 체험으로부터 온다는 의미이다.

세 번째 의의는, 지역만들기나 지역정책을 구상, 입안할 때의 기초적인 판단 재료가 얻어진다는 점에 있다. 각각의 지역문제는 지구적인 문제나 국내 문제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놓여있는 경제적 위치나 그 지역의 자연조건이나 역사조건, 사회적 조건에 규정되어 다양한 개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역만들기나 지역정책 마련에 있어서 아무리 좋다는 전국 공통의 메뉴얼을 적용해도 '백해무익'한 것도 종종 있는 것이다. 즉, 무엇보다도 그 지역의 특성을 지구적인 시점에 정확히 두고 지역만들기의 운동방향이나 정책내용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지역조사에 의해 지역문제의 구조나 변동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간다면 그 지역에 상응하는 발전방향을 찾아낼 것이다.

3. 지역과제를 명확하게 한다.

이미 각각의 현장에서 정책입안이나 마을만들기를 목적으로 하여

조사해본 바와 같이, 과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과제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한, 아무리 조사해도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제로서는 '○○ 지역의 XX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역의 주민기초조직의 특성에 대해서,' '**임대주택 주민 생활실태')와 같이 어떤 지역의 무엇을 밝힐 것인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지역을 알기 위한 문헌 조사법

조사과제가 명확해진 다음에는 문헌조사를 해보자. 문헌자료에는 크게 나누어 통계자료와 통계 이외의 문헌자료가 있다.

통계에 대해서는 ① 통계청을 비롯하여 중앙정부가 방생한 통계서 ② 지방자치체가 발행한 통계서가 이용하기 쉽다. 독자적인 통계서를 발행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라도 통상 '시(군·구)정 백서'를 발행하고 있고, 그 안에 기본적인 통계 수치는 들어 있다. 이들은 대학도서관이나 공립도서관에 비치되어 있기도 하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도 이를 열람 혹은 직접 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이들 출판통계서와는 별도로 업무통계라고 불리는 통계류가 있다. 이들은 각 사무의 업무수행을 위해 집계되어 있는 것으로 공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각 지자체의 자료실 등에서라면 열람 가능하다. 통계를 다룰 때에는 조사항목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단지 숫자를 나열하는 것이 아닌 각종 연산을 시도하기도 하고, 지역 · 계층 구분을 공부하는 등 '가공'한 표나 그림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계 이외의 문헌자료에는 많은 종류가 있다. 예를 들면 ① 조사 지역이나 대상 산업·문제와 관련한 단행본, ② 정부부서가 내고 있는 백서류, ③ 지자체사(自治體史), 회사사(會社史), 단체사 등의 편년사(編年史)류, ④ 국가나 지방자치체가 발행한 개발계획, 지역 진흥 비전 등의 행정계획 문헌류, ⑤ 국가나 지방자치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문서류, ⑥ 국가나 지방자치체 등에 의한 위탁조사류, ⑦ 학술잡지나 정기 간행물에 게재된 논문류, ⑧ 은행이나 싱크탱크 등이 내고 있는 조사보고 서류, ⑨ 정부 부서나 지자체, 회사가 기자회견 등에서 공표한 언론 발표 자료류, ⑩ 해당 지역이나 주제에 관한 신문 정보 등이 있다.

이들 많은 문헌자료 중에서 조사에 필요한 것을 찾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몇몇 항목에 대해서는 국립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에서 거의 입수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과제와 직접 관계가 있는 담당과에 연락하여 자료를 입수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그 중에는 상당한 양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PC통신이나 인터넷에 의해 정보검색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현재, 국내 통신망에서도 한계는 있지만 '열린정부' 등의 서비스를 통해 상당 정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들 PC통신에서는 각종 종합일간지, '한겨레21' '시사저널' 등의 주간지, 전문지, '말' 등의 월간지들의 데이터베이스와 접속 서비스를 해두어 비교적 간단한 조작으로 필요한 기사 전문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 더욱이 관청 및 지방자치체의 홈페이지 어드레스에서도 각종 정보를 대하기에 용이하나 아직까지는 충분한 자료들이 올라있지는 않다. 그리고 그 중에는 초록밖에 게재되어 있지 않은 경

우가 많아, 전문을 보려면 직접 입수할 필요가 있다.

5. 지역실태 조사의 진행(百聞이 不如一見)

무엇보다도 문헌자료나 통계는 해당 지역의 단면을 저자나 통계 주체의 휠타를 통해 얻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많은 경우, 자신들이 조사하고 싶은 과제를 직접 알려주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좋다. 따라서 지역에 들어가 독자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밖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론을 지역에 바로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살아있는 현실을 분석하는 것에 의해 거기에서 작용하고 있는 법규성을 찾아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역조사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준비나 분석도 중요할 것 같고 처음 대면하는 사람과 말을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그러나 철저히 준비한다면 생각보다 쉬울 것이다. 실제 조사의 과정에서 이러한 어려움 등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 예비학습에서의 의문이 풀리기도 하고 전혀 새로운 문제, 재미있는 정보와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조사는 확실한 절차와 약간의 용기가 있다면 두려울 것은 없다.

6. 지역실태조사의 방법

- 조사의 흐름을 표시해 두자!

우선, 조사의 커다란 흐름을 표시해 두었으면 한다. 이미 서술한 것처럼, 최초로 <조사목적의 설정>을 행한다. 다음에 이 목적에 관

런한 문헌이나 통계를 수집, 검토, 조사로 분명하게해야 하는 것을 가설화 하는 <예비학습>단계에 들어간다. 여기까지 왔다면 <조사대상이나 조사내용의 확정>도 거의 가능하게 된다. 이 시점에서 조사 대상지역에 있어서 해당 문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고, 관계단체나 관계자도 소개받을 수 있는 곳(많은 경우 지방자치체)으로 <예비조사>를 나가보자.

예비조사에서는 조사 테마에 대한 강의를 받기도 하고, 도서관 등에서는 입수하기 어려운 자료류도 수집하길 바란다. 예비조사의 약속을 정할 때에 질문항목과 아울러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가를 상대에게 사전에 알려준다면 많은 경우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조사대상이 원거리인 경우는 본조사에 예비하여 조사 대상처, 교통편, 숙박시설 확인 등도 해두길 바란다. 또한 본조사에서 청취나 앙케이트를 행하는 경우, 질문항목을 설계하여 시험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준비를 한 후에 <본조사>에 임한다. 본조사를 집단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한사람 한사람의 시간표를 확인해 두길 바란다. 교통이 불편한 곳에서는 자동차의 수배와 이동도 계획안에 준비해 두어야 한다. 또한 조사시에 도움이 될 사람에게는 조사 당일엔 간단한 선물을 지참하거나 조사 종료 후에 사례편지를 보내는 등의 배려도 필요하다.

본조사의 종료 후, 예비조사단계 등에서 수집한 자료도 함께 <분석>작업에 들어간다. 앙케이트 집계 등에서는 PC를 활용한다면 편리하고 정확하다. 또한 <분석>을 진행하는 가운데 조사가 부족하거

나 보충하고 싶은 자료가 보일 것이다. 그와 같은 경우, 수시로 <보충자료>를 수행하여 조사과제에 따른 조사결과를 정비한다.

<그림1. 조사흐름도>

조사목적의 설정 → 예비 학습 → 조사대상이나 조사내용의 확정
→ 예비조사 → 본조사 → 분석 → 보충조사

7. 조사의 정리와 보고서 만들기

한 가지 조사와 분석 작업을 마쳤다면, 끝으로 <정리> 작업에 들어간다. 가능한 한 조사보고서나 리포트, 논문의 형태로 조사결과를 인쇄물로 남겨두길 바란다.

조사보고서 등을 집단으로 집필하는 경우는 전원이 장별 편성, 집필 문담, 집필 내용, 집필 요령 자수, 도표의 작성방법, 주의 첨부 방법, 참고문헌 넣는 방법, 원고종료일) 등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한사람이라도 원고를 내지 않았다든가 전체와 다른 형식이나 내용으로 해서 마쳤다면 그 후 편집작업이 번거로운 일이 되지 않을까 하기 때문이다.

인쇄제본에는 다소 비용이 들지만 디스켓으로 정리해두거나, 직접 만든다면 상당히 싼 가격으로도 가능하게 된다. 물론, 개인컴퓨터나 복사기를 활용하여 자신들이 복사, 가제본 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느 쪽이라도 조사결과를 갖고 현지 보고회를 하거나 인쇄된 조

사보고서를 조사에서 도움이 된 기관이나 전문가를 시작으로 제3자에게 공표하는 것에 의해 조사결과의 객관적 평가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들 평가 아래에 조사전체의 성과와 문제점을 명확히 하는 것에서 인권의 조식활동은 완결하는 것이 된다.

[후기] 긴 빈곤의 터널 그 끝은 어디에

2002~2003년 하월곡동을 조사할 때만 하더라도 빈곤이 가져다준 고통이 어찌면 이곳에 한정되어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이 있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가 된 하월곡동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의 빈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 되기도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언론을 통해 보도된 우리 사회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죽음'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떤 노동운동가의 표현처럼 IMF 당시 우리사회 빈곤은 '노숙자'로 대변되었으나 이제는 '생계형 자살'이 그 바턴을 이어가고 있다. 사회적 타살을 더 이상 줄이기 위해서 인권운동은 무엇을 해야하는가 하는 고민으로 이 자료집을 제작하였다. 1년 이상 자료집 제작이 지연되었음에도 1년 전에 비해 인권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이 자료집을 그나마 사람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3년 전 겨울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주장하며 노상농성을 전개하다 참담한 외면 끝에 결국 자살로써 생을 마감한 최옥란 씨의 죽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지금도 최옥란 씨처럼 우리를 향해 고단한 삶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카드 빚에 몰려 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는 사람들, 교실에서 쫓겨난 아이들, 지하보도 한 칸에서 신문지 한 장으로 잠을 청하는 노숙자들 등등.... 이들 삶의 한 가운데로부터 '사회적 연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고, 권리확보를 위한 운동에 함께 나서는 일, 새해 긴 빈곤의 터널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기 위해 이루어야 할 사회적 연대의 주요 과제이다.